

봉급 한 푼 안 쓰고 내 집 마련하기

광주 2년5개월 … 대도시 중 가장 빠르다

서울 8년8개월·부산 4년5개월·대전 3년10개월

전국 대도시 가운데 광주가 집을 장만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산층 근로자가 중간가격의 주택을 마련하는데 서울은 8년8개월, 부산 4년5개월, 대전 3년10개월 걸리는데 비해 광주는 2년5개월이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1년10개월 걸린다.

2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광주 중산층 도시근로자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MPIR)은 1을 1분기 2.46으로 전분기보다 0.08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6포인트 상승했다. 전남은 1.85로 전년보다 0.22포인트 올랐다. 전국은 4.37이었다.

이는 광주 주택가격의 중간치(약 1억원)가 광주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연소득(월 340만원)에 비해 2.46배 수준이라는 뜻이다. 광주 중산층 근로자가 봉급을 한 푼도 안 쓰고 2년5개월간 모아야 중간 가격의 주택을

장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남 근로자는 주택 마련에 1년10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4년8개월(4.37)이 소요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8년8개월(8.68)로 가장 길었고, 인천 4년10개월(4.84), 부산 4년5개월(4.46), 대전 3년10개월(3.85), 대구 3년4개월(3.38), 울산 2년11개월(2.96), 광주 2년5개월(2.46) 순으로 7대 대도시 가운데 광주가 가장 짧았다.

도(道) 지역에서는 경기가 가장 긴 5년4개월(5.37) 소요됐고, 이어 경남 3년5개월(3.44), 제주 2년9개월(2.79), 충남 2년7개월(2.61), 전북 2년6개월(2.56), 강원 2년1개월(2.11), 경북 1년11개월(1.93), 전남 1년10개월(1.85)로 전국에서 전남이 주택을 장만하는데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은 다른 시·도에 비해 주택 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짧지만, 지역 내에서는 힘겨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의 을 1분기

■ 지역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1분기, 단위:%)

지역	2009년	2010년	2011년
전국	4.33	4.31	4.37
서울	9.22	9.07	8.68
부산	3.38	3.59	4.46
대구	3.37	3.36	3.38
인천	5.17	5.13	4.84
광주	2.14	2.20	2.46
대전	3.26	3.38	3.85
울산	2.63	2.73	2.96
경기	5.83	5.68	5.37
강원	2.07	1.99	2.11
충북	2.30	2.29	2.50
충남	2.50	2.57	2.61
전북	2.23	2.33	2.56
전남	1.59	1.63	1.85
경북	2.07	1.96	1.93
경남	2.55	2.70	3.44
제주	2.62	2.70	2.79

〈자료:주택금융공사〉

MPIR이 지난 2004년 조사 이후 가장 높았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08년 2분기(2.04, 2년1개월)보다 0.42포인트 증가해 2년여만에 4개월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분기 2.29(2년3개월)에서 4분기 2.38, 올 1분기 2.46으로 급등, 6개월 사이에 주택 마련 기간이 2개월이 더 걸리고 있다.

이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으로 탈바꿈하는 광주시 서구 학정·염주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여파로 전세·매매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도 지난 2007년 1분기(1.38, 1년4개월)에 비해 6개월(0.47P)이 더 걸렸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장만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다른